

피플 & People

中정부 '우의상' 수상

김용진 교수



(서울의대 소아
아흥부외과)가
최근 중국 중
앙정부에서 외
국인에게 수여

하는 최고상인 '우의상(Award for Friendship)'을 받았다. 우의상은 1991년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설립되어 문화, 교육 및 과학발전에 큰 기여를 한 외국인 경영자 또는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중국 최고 권위의 상이다.

김교수는 2000년부터 연변, 하얼빈 등에서 3000여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의 선천성 심장질환아들을 수술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2009년 9월 우의상 수여를 결정했다.

이에 김용진 교수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하얼빈 아동병원에서의 의료봉사 일정을 통해 14일 오전 하얼빈시 우의궁에서 장밍(姜明) 상무부시장으로로부터 상을 수상했다.